‘박제(剝製)된 역사와 형해(形骸)가 된 기억’*을 넘어서
아산 정주영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김구한(울산대학교 아산리더십연구원 연구교수)

〈목 차〉

1. 머리말
2. 왜! 기록하는가
   1) ‘알려진 사실’과 ‘확인된 진실’의 간극 사이에서
   2) 구술자료 수집의 정리 현황과 특징
3. 무엇을 해야 하나
   1) 아산이 살다간 시대
   2) 인물에 대한 ‘박제화(剝製化)’된 역사
   3) 인물에 대한 ‘형해화(形骸化)’된 기억
4. 어떻게 할 것인가
   1) 구술 자료의 활용과 방법
   2) 아산 구술의 시대적 의미
5. 마무리
참고 문헌

1. 머리말

아산이 살다간 시대는 한국사에서 매우 독특한 전환기에 해당한다. 근대와 현대로 나누어지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가 아산이 헤쳐 간 역사의 무대였다. 이 시대의 전환

* 정진홍, 「저널발간에 즈음하여」, 『아산리더십연구원 저널』, Vol. 1, 울산대학교 아산리더십연구원, 2014. 5쪽에서 인용하여 제목으로 삼았음을 밝힘.

은 사회 모든 분야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격변의 시기였다. 올곧은 아산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시대정신과의 관련성 하에서 논의될 때 그 사람의 행보가 제대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산은 우리의 삶 속에 '아산 정주영'으로 있지 않다. 아산은 하나의 '아산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림의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 인물의 삶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되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대기업 창업주' 또는 '재벌'이라는 한 측면만이 아닌 그 인물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 인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아산에 대한 이해는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라는 논의를 넘어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학문의 장안에서 다양한 논의[1]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금까지 거시적으로는 한국경제발전의 큰 틀 안에서 그의 능력이 이야기되었다면 이제는 미시적 방법으로 그러한 성취나 기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평가가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열린 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아산을 역사 속에 박제화시키는 신화화된 영웅으로 남겨 둘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한 인간으로, 쉼표를 넣을 것 우리네 삶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어지는 미래적 인물로 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아산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삶의 폭이 큰 사람이었다. 단순히 기업가로만 이해되는 아산이 아니라 삶의 전 분야에 걸쳐 흔적을 남긴 사람이기에 기업가라는 한 분야만을 가지고 아산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사실도 주지해야할 것이다. 이 글은 아산에 관한 구술 자료 수집의 내용과 그 의미를 파악함과 아울러 아산관련 구술자료 수집이 한 기업가를 이해하는데 어떤

1 울산대 아산리더십연구원에서는 아산 탄생 100주년을 맞아 『아산, 그 새로운 울림: 미래를 위한 성찰』(2015년)이라는 주제로 아산연구총서 4권을 펴낸 바가 있다. 이러한 총서는 아산을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2. 왜! 기록하는가

1) '알려진 사실'과 '확인된 진실'의 간극 사이에서

역사는 기록에 의존한다. 그 기록은 사실에 바탕하여 주관성과 객관성이 합치될 때 그 의미를 더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역사든 국가의 역사든 올곧게 기록되고 보존될 때 유산으로 자리매김한다. 우리가 기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평가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역사가 그러하듯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한 개인의 삶이 성공으로 점철된 인생은 없을 것이다. 그 눈부신 성취 뒤에 숨겨진, 피눈물 나는 노력의 자취들은 자칫 잊혀지거나 소홀해지기 쉽다. 한갓 에피소드로 변하여 우상화되는 경우도 있다. 보이는 성공과 보이지 않는 평범성, 이 경계에서 우리는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그러나 한 인간에 대한 기록과 평가는 우리네 삶의 복잡성과 다양성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다. 지금까지 아산에 대한 평가는 주로 성공한 기업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방점이 찍혔다. 그의 인간적 면모나 성장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사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은 '영웅화' 또는 '신화화'의 장치로 둔갑했다. 따라서 한 인간의 면모를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지점에서 한 인간에 대한 과거의 진실(truth)을 보존하려는 노력과 그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이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하는 진실성(truthfulness)의 문제가 제기된다. '과거의 진실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이 역사학의 본령이라면 연구의 대상이나 재료를 특정한 것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역사해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에서도 전통적인 역사서의 형태를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기억에 의지하는 구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실천되고 있다.[2] 아산구술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한국사회에서 아산은 어느덧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업가를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풍토로 인하여 그를 학문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그가 이룬 성취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상반된 생각들로 인하여 학문의 장에서 제대로 이야기된 경우가 많지 않다. 일반 정치인들과 달리 기업가인 그가 남긴 활자화된 기록도 그리 많지 않은 형편이다.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남아있는 그에 대한 기억과 기록들을 가지고 이야기되는 현실들이 너무나 상이하여 때론 당혹감을 느낄 때도 많다. 그 당혹감은 '알려진 사실'과 '확인된 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다.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진실의 문제는 남아 있는 활자들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무수한 각주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구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징표가 된다. 아산 구술의 목적은 정직한 인식과 열린 세계를 향한 작은 시도이다. 기업가에 대한 구술이 총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아직 없다. 2009년부터 비교적 큰 규모로 시작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현대 한국 구술사 연구 사업' 역시 정당정치, 경제외교, 민주화와 종교, 한국군 등의 주제로 기업가를 한 분야에 국한하여 구술을 진행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한 기업가를 집중적으로 조망하여 구술 작업을 한 사례는 국내에는 없는 줄 알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울산대학교에서는 2012년에 아산리더십연구원을 설립하여 아산관련 문헌자료 수집과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구술자료 수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산이란 인물이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해 갔으며, 그가 우리 시대에 남긴 역사적 흔적이 무엇인지를 한국현대사의 흐름 안에서 파악하려 한다.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아산 관련 인물들에 대한 구술인터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업의 배경은 아산 사후 아산관련 기억의 파편화와 동시에 구술관련자의 급속한 소멸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함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문헌 기록의 한계가 중요한 역사서술의 문제로 등장하는 즈음에서 살아있는 분들의 증언은 단순한 증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언의 확보는 한 인물에 대한 삶(개인적 역사)의 결손을 메우는 작업임과 동시에 자의적 해석으로 역사적 사실

2 허영란, 「집합기억의 재구성과 지역사의 모색」, 『역사문제연구』 제32호, 역사문제연구소, 2014. 374쪽.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이 경계가 아산 구술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접점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아산과 함께한 동시대의 인물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이다. 아산의 삶의 궤적은 여타 기업인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인다. 아산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예술 등 삶의 폭이 매우 컸다. 따라서 구술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된다. 사회 엘리트 계층의 인물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그룹에 근무했던 노동자(직업훈련원 출신), 노동조합(노조위원장), 울산 시민 등 구술대상의 폭이 매우 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아산관련 구술사업이 지니는 문제의 하나는 긍정 일변도를 구술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현실적으로 제기된다. 그것은 다양한 분야,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구술을 통해 극복해야할 문제이다. 비단 이 부분은 아산구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구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구술자료의 풍부한 해석을 통해 객관적 실체에 접근해야 한다. 수집한 구술자료의 간극을 다양하게 해석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못지 않게 구술자료의 신뢰성을 해치는 일부 '무의미한' 간극을 걷어내고 '역사적 사실'에 접근[3]하는 것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한 기록은 긍정과 부정을 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그것이 구술이 주는 또다른 '맛'이다.

모든 구술자료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 즉 '사실(fact)', '기억(memory)', '구술(oral narrative)'이라는 요소를 거쳐서 생산된다. 구술자료와 사실 사이의 간극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거치면서, 때로는 구술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연적·우연적·필연적으로 형성(rising)되기도 하고, 때로는 구술자의 의식적·무의식적 의도에 의해 인위적·선택적으로 구성(making)되기도 한다.[4]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선별기억과 선별 인식은 필연적으로 왜곡을 낳을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구술자료에 나타나는 사실의 왜곡이라는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술 과정과 구술 내용, 구술자료의 해석 등 총체적·분석적

3 조영재, 「'사실'과 '구술자료'의 간극에 대한 하나의 해석 : 정치엘리트 구술을 중심으로」, 『기록학 연구』 43집, 한국기록학회, 2015, 67-68쪽.

4 조영재, 위의 논문, 50쪽.

으로 접근할 때 간극을 줄일 수 있고 구술의 '진실'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에 따라, 그것이 초래한 우리 사회나 국가, 또는 세계를 위한 기여는 어떠한지 하는 데 따라,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그 일을 했는지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서술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들이 담고 있는 가치판단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긍정과 부정, 그리고 그것이 중첩된 혼란스럽기조차 한 판단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5] 논의가 지속된다는 것은 아직 그만큼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산구술사업은 아산이 이룬 성취의 본질을 살펴봄과 아울러 문헌자료의 한계를 극복하여 '역사적 진실'에 접근함과 이울러 '알려진 사실'과 '확인된 진실'의 간극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구술자료수집의 정리 현황과 특징

구술은 역사 연구에서 기록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탁월한 장점이 있다. 문헌 기록의 보완을 위해서도 구술자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자료나 사실, 이론의 발견을 가능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또한 구술자료는 문서 기록이 망실되었거나 훼손되어 알 수 없게 된 사실을 복원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대체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구술사 자료나 회고록 등과 같은 '질적연구'가 낳은 기록이 없어서는 안 되는 자료로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6] '사실'과 '진실'의 간극을 메우는 작업 중의 하나가 구술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구술의 정확성, 신뢰성 그리고 주관성을 중심으로 구술사가 지닌 태생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구술자의 기억이 부정확한 것에 대해서, 또 낭만

5 정진홍, 「긍정·도전·창의의 기반 – 아산의 자아구조」, 『아산, 그 새로운 울림: 미래를 위한 성찰』(제1권 얼과 꿈), 울산대 아산리더십연구원, 2015, 162쪽.

6 김귀옥,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구술사 연구의 탄생과 역할, 과제」, 『구술사연구』 제7권 2호, 한국구술사학회, 2016, 31쪽.

적인 회상의 성격을 가진 기억과 개인적인 편견에 따른 기억 등이 구술의 한계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 한계를 거꾸로 이용해서 구술자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작업으로 구술사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즉 구술사가들은 기억의 사실성보다는 진행과정, 즉 신빙성보다는 구술자의 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7] 따라서 아산관련 구술자료 수집 사업은 이러한 한계들을 수용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의 총화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구술자료 수집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기록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구술사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그야말로 구술 사업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지남침이 없을 것이다.

한국구술사네트워크 구술자료 공동 목록 정리표[8]를 참고로 하면 구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파악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예술자료원,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성공회대학교민주사료관, 연세대학교김대중도서관, 전북대학교무형문화연구소, 한국영상자료원영화사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현대한국구술자료관 등 10개 기관이 구술사업을 진행하거나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다. 대부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진행한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경제분야의 구술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현대한국구술자료관에서 정치, 경제, 외교, 군, 종교 분야의 엘리트 구술을 채록하고 있는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분야나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구술은 아직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아산리더십연구원의 구술자료 수집 사업은 한 기업가를 대상으로 총체적, 체계적, 전체적 면모를 파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두 축인 정치와 경제 중 그 무게 중심이 정치에 있는 것을 경제 분야로 넓히는 작업으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산관련 구술은 이제 수집과 더불어 정리, 분류, 활용에

7 함한희, 「구술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구술사연구』 창간호, 한국구술사학회, 2010, 19쪽.

8 윤택림, 「기관구술채록의 진단과 과제」, 『구술사연구』 제6권 1호, 한국구술사학회, 2015, 29-30쪽.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방법은 각종 자료를 아카이브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원에서는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각종 구술자료에 대한 5분 영상과 상세목록, 요약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구술아카이브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구술아카이브를 특성화하여 한 기업가에 집중함으로써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구술자료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9]을 기울이고 있다.

아산관련 구술사업의 특징적 요소는 아산과 함께 현대그룹의 성장을 함께 한 사람 및 사회지도층뿐만 아니라 일반노동자. 시민, 나아가 아산에 대해 부정적 면모를 보이는 사람까지 그 폭이 매우 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엘리트 구술의 변종적 형태이다.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엘리트연구반은 엘리트를 "① 비교적 높고 안정된 경제적 수입을 얻으며, ②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와 발언권을 인정받던 일련의 직업군"의 사람들로 정의했다.[10] 이 정의를 참고로 한다면 아산구술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노동자들은 중졸 또는 고졸 출신들이 많다는 점이 일반 엘리트 구술과는 부분적으로 다른 점이라 하겠다.

2009년부터 본격화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현대한국 구술사 연구사업' 역시 "현대한국의 주역들에 대한 구술사 기록"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엘리트 구술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정당정치, 경제외교, 민주화와 종교, 한국군 등의 주제를 선정, 엘리트 구술을 진행하면서 구술아카이브를 동시에 구축하고 있다. 경제분야 인물에 대한 엘리트 구술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구술이므로, 아산리더십연구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바, 특정 경제인물을 중심으로 한 시대를 재현하는 종합적 구술 프로젝트와는 구분된다. 아산의 경우, 경제인물이기는 하지만 정치분야에도 관여를 했고, 그 인물을 통해 격동의 20세기 한국 심성사를 재현해 낼 수도 있는 인물을 주제로 한 구술프로젝트이므로 그에 걸맞은 비전을 독자적으로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11] 아산관련 구술은 엘리트 중심의 구술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그 대상을 넓혀 일반노동자, 시민까지 참여하여 지금까지

9 구술자료의 서비스 문제는 아직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하여 실시간 제공은 하지 않고 있다. 구술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제3자 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10 김태우, 「엘리트 구술자료의 성격과 수집 방안」, 『구술사연구』 제5권 1호, 한국구술사학회, 2014, 49쪽.

11 허영란, 「아산학과 한국의 현대심성사」, 『제1회 아산학술심포지엄』, 울산대 아산리더십연구원, 2013, 35쪽.

보여 준 엘리트구술이나 민중구술을 포함하는 형태의 구술로 그 대상이 매우 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아산 구술 사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아산 정주영 현대창업자와 함께 격동의 20세기를 살아온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구술 채록하여 아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아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술인터뷰란 일반적으로 신문 잡지의 인터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사 속에서 실제로 살아갔던 한 인간의 미시적인 삶을 역사화하기 위해 최근 역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연구 방법론의 하나이다. 따라서 구술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실지로 보고 듣고 겪은 일, 즉 그들의 '경험'을 역사로서 재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다. 아산이란 인물이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해 갔으며 그가 우리 시대에 남긴 역사적 흔적이 무엇인지를 한국현대사의 흐름 안에서 파악하려 함. 이런 연구를 위해서는 아산 관련 인물들에 대한 구술인터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 문헌자료들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구술자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산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재해석하여 '아산연구'를 체계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산이 돌아간 지 16년이 지난 지금 아산관련 기억의 파편화와 동시에 구술관련자의 급속한 소멸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함이 이 사업의 필요한 이유이다. 한 기업가를 대상으로 전체적·종합적·체계적으로 구술자료를 수집한 사례는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술자료의 수집 과정 및 아카이브 구축의 전과정을 체계화하고 그 성과를 각 기관 및 단체와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산관련 구술자료 수집 사업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아산리더십연구원에서 진행한 구술자료 수집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계별	구 분	인 원	비 고
1단계	현대그룹 성장사	23명 (25회)	2012년 사업
2단계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역사회학교운동 교육계, 문화계, 체육계(88올림픽 유치 활동)	20명 (20회)	2013년 사업
3단계	현대그룹 성장사, 문화계(방송, 소설가) 해변시인학교(시인), 전경련활동	14명 (20회)	2014년 사업

단계별	구 분	인 원	비 고
4단계	현대그룹 성장사, 현대공업학원 사회활동(법조계), 체육계(88올림픽 유치 활동)	15명 (15회)	2015년 ~ 2016년 사업
5단계	아산사회복지재단(아산병원), 현대그룹 성장사 현대중공업 직원훈련원, 현대그룹 노동조합	20명 (20회)	2017년 사업
6단계	현대그룹 성장사, 현대중공업 노동자 현대그룹 노동조합(위원장), 울산 시민 사회활동(법조계, 문화예술계), 가족 및 기타	20명 (예정)	2018년 사업

총 인터뷰 인원 : 92명 100회 인터뷰 실시(5단계 사업, 2017년까지)

3. 무엇을 해야 하나

1) 아산이 살다간 시대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 인물이 살다간 시대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 아산을 특출한 개인으로 보기 이전에 그가 속했던 시간과 공간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산이 살았던 시간과 공간을 이해함으로써 아산을 재해석하고 아산을 통해 그가 살았던 시간과 공간의 시대정신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물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인물과 그의 시대'에 대한 연구이다.[12]

아산이 특출한 기업가였지만 그의 시대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의 특출함이나 성공을 맥락적으로 해명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아산과 함께 '그의 시대'를 보아야 한다. 아산이 살다간 시대는 한국사에서 매우 특별한 전환기에 해당한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농경제 사회에서 기업이 주가 되는 상공업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었고,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경험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식민 강점 시대를 겪었다. 일제 강점기는 농촌 경제의 몰락을 가져왔다. 식민시대의 종언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나아가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이념의 대립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결국 이 땅은 냉전의 최후 보루로 민족 상흔이 아로새겨진 이념 대립의

12 허영란, 위의 논문, 36쪽.

실험 무대가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고착·고정화된 외세 의존성, 계몽과 진보의 이름으로 전개된 '문화 정체성 해체와 재구성의 갈등과 환란', 경이로운 압축 근대화, 개발독재와 산업화 열정의 결합,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갈등, 정경유착, 성장과 분배의 갈등, 기업국가와 노사문제, 지구적 규모의 국제 간 교역과 경제의 대외 의존도 심화[13] 등, 이 모든 격동과 전환이 압축적으로 펼쳐진 시대가 아산이 살다간 시대였다.

경제분야에서는 국가주도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압축적이고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 냈다.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을 주도한 주체들은 농본주의적 심성에 기초하면서도 압축적 성장을 신속하게 달성하고자 했던 '박정희를 비롯한 일군의 관료들이었다. 1960년대 경제정책을 기획 운영했던 관료들(발전국가론에서 주목하는 주체), 정부 주도 경제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이후 '재벌'로 성장하는 기업(가)들, 경제 성장과 함께 성장하는 노동계(노동의 축적), 이들이 현대 한국사회를 만들어온 주체들이다[14]. 현재의 모순구조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들이 한국 사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하여 모순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를 바탕으로, 한 기업가가 살다간 시대를 조망하는 것은 미래 한국 역사를 튼실하게 하는 주춧돌이 된다.

따라서 아산이 살다간 시대는 모든 유형의 관행들이 퇴색하고 재구성되는 격렬한 부정이 불안 속에 전개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의욕이 희망 속에 꿈틀거렸다. 한국인들이 최초로 경험하는 문명적 차원의 전환 시대였다. 아산의 일생을 담아낸 시대는 이 전환기적 조건들이 압축적으로 얽혀 격동적으로 변화하였다. 해체와 수립의 격동이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헤쳐 간 아산의 행보는 경제범주와 관련하여서는 가히 독보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환시대에 대한 아산의 대응 방식을 찾아내고 이해하려는 것도 구술 사업의 가장 큰 지향점의 하나이다. 아산이 살다간 시대와 그 행보를 살펴보는 것이 아산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아산의 삶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이승만 독재, 4.19의거, 5.16 군사 정변 등을

13 박태원, 「자기구현의 인간학-아산의 인성」, 『아산, 그 새로운 울림: 미래를 위한 성찰』(제1권 얼과 꿈), 울산대 아산리더십연구원, 2015, 95쪽.

14 허영란, 앞의 논문, 37쪽.

경험하면서 국가의 소중함을 몸소 깨달았다고 한다. 나라가 없어지고 자기 사업이 없어지는 것을 뼈져리게 경험한 인물이다. 따라서 아산은 경제 활동의 기본을 '나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에 두고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잘되는 것이 나라가 잘되는 길이며 나라가 잘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로 투철한 국가관을 드러내었다. 아산의 '시대인식'은 국가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몸소 느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믿음이 누구보다도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근대 100년 동안의 압축적 근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정치·사회·경제 모든 분야에서의 성장은 그 후유증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치와 경제는 성장의 두 축을 형성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담당해 왔다. 정치권력은 경제 권력을 등에 업고 성장을 주도하려고 하였고, 경제권력은 정치권력에 힘입어 자신들만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갈등들의 뿌리는 애초 한국자본주의의 출발에서 연유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며 국가 발전을 주도해 왔다. 한국 사회의 압축 경제 성장은 이러한 양면성을 지니고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기업가에 대한 부정과 긍정의 애매모호한 평가는 한국사회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회적·심리적 모순성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대에 대한 인식과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는 한 인간의 면모를 다시 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다.

'시대정신'은 오늘날의 철학적 정의보다는, 단지 그 시대에 특유의 사회적 상식을 가리키는 일반적 의미로 이해한다. 따라서 당대의 '시대정신'이란 한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동향 등으로 해석한다. 아산이 살다간 시대도 그 시대의 보편성과 객관성, 민족이 처한 특수성 등이 바탕이 되어 한 인물의 자아가 형성되었다. 그 자아가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겠다는 욕망과 맞물려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정립했던 것이다. '시대정신'은 한 사람을 올곧게 또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준거가 된다. 이 점이 아산이 살았던 시대를 살펴보는 이유이다.

2) 인물에 대한 '박제화(剝製化)'된 역사

민중 구술이든 엘리트 구술이든 개인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살아온 삶의 모습을 주체적 입장에서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술이라면, 아산 관련 구술의 특징은 구술자 자신의 삶의 문제가 아닌 타자화된 시선으로 한 인물의 삶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아산관련 구술을 진행함에 있어 구술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확대 재생산하여 영웅화내지는 신화화하는 경향(이런 현상은 문헌자료에 더 심하게 나타남)이 강한 부류의 구술자들이다. 다른 하나는 비교적 '검증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진술에 충실한 구술자들이다. 이점이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구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구술자의 기억 경험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억들은 '정도(正道)'와 '변주(變奏)' 사이를 방황하며 구술자의 상황에 맞게끔 재구성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산 관련 구술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하늘이 낸 사람' 또는 '한 세기에 한 명 나올 만한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그를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닌 영웅담에 등장하는 주인공이게 하거나 신화적 범주에 드는 인물로 박제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한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나 그것이 우상화됨으로서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자리잡음으로써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아산 관련 구술 사업은 아산을 역사 발전의 축적된 가능성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작업이다. 축적된 가능성으로서의 삶을 인정하고 승인하면서 오늘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내다보는 힘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들을 역사에 대한 해석학을 통해 미래로 나아간다면 아산은 역사 속의 '박제'로 남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 '힘'의 표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만들어진 아산'(현상)이 아닌 '본래적 아산'(본질)이라는 인물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 믿는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위한 거리 짓기는 구술사업의 중요한 의미의 한 분야이다. 그것은 '비범과 평범'의 거리를 좁히는 한 인물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비범과 평범의 거리 짓기에서 '비범함'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검토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아산관련 도서와

논문들은 아산 이해의 일정한 경향과 유형을 확인시켜 준다. 아산 생전과 사후 10여 년 동안 진행된 아산 관련 글들은 모두 아산의 탁월한 '리더십'에 집중적 관심을 보여준다. 아산의 입지전적인 생애와 기업가로서의 성취도 그 의미가 결국은 리더십에 모아지고 있고, 경영과 경제적 족적 역시 리더십의 연장선에서 탐구되고 있다. 아산이 동시대 한국인들에게 각인시킨 가장 강력한 인상은 '비범한 리더십'[15]이었던 셈이다.

아산리더십 연구원이 발간한 '아산관련 도서 목록집(2013)과 소장도서 해설집(2014)'을 보면, 아산 관련 글은 1979년 이후 2012년까지 156종(저서 9권포함)에 이르고 있다. 아산에 관한 이들 저작물들은 아산 읽기의 일정한 경향과 유형을 확인시켜 준다. 아산 생전과 사후 10여 년 동안 진행된 아산 관련 글들을 유형화시켜 보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생애와 기업 활동 2) 경영/경제 활동 자료 및 연구 3) 인간적 면모와 리더십 및 행적 4) 사회적 기여가 그것이다. 이것을 각각 전기형(傳記形), 경제형(經濟形), 인간형(人間形), 사회복지형(社會福祉形)이라 부르는 동시에 전기형/경제형/인간형/사회복지형이 종합된 형태를 복합형(複合形)이라 부른다.[16] 아산 관련 글들의 유형별 분류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인간형과 전기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간형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대부분 '인간적 면모와 리더십 및 행적'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아산에 관한 시선이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비범한 인간적 면모에 집중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2012년까지 학술지에 실린 아산관련 논문 및 학위논문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된다. 정리하면, 아산 관련 간행도서에서는 인간형과 전기형이 지배적 경향이고, 학술논문에서는 인간형과 경제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적 글에서는 아산의 비범한 리더십과 입지전적 생애 및 기업가로서의 탁월한 성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학문적 글에서는 리더십과 경제행위의 분석과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중적 관심과 학문적 관심이 공통적으로 향하는 곳은 아산의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분명 인간적 능력이자 면모이다. 아산을 향하는 시선이 압도적으로 그의 리더십과 비범성에 쏠려있다는 것은, 아산개인의 인간적 능력과 면모가 그만큼 비범하

15 박태원, 앞의 논문, 93쪽.

16 박태원, 위의 논문, 93쪽.

고도 강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산의 리더십은 아산 읽기의 핵심부를 차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더십에 함몰되고 비범함에 사로잡힌다면 그는 평범한 일상인이 아닌 하늘이 내린 인물 또는 영웅화되는 인물로 격상하게 되어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비범한 인물'이 되어 박물관의 유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평범한 사람이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삶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가 하는 점, 따라서 자기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 성취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믿음, 삶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인물로 우리 곁에 남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인물을 '박제화된 틀' 안에 가두게 될 때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받기는 힘들어 진다. 아산 구술은 아산을 재연(再演)하려는 것도 아니고 재현(再現)하려는 것도 아니다.[17] 아산의 삶 자체는 벌써 과거적 삶에 속한다. 한 인간의 과거의 빛나는 삶의 과정을 가지고 그것을 박제화한다는 것은 우리 역사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물론 아산의 삶이 하나의 역사적 현실로 서술될 만큼 온전히 역사화되지도 않았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과거의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미래로 이어지는 열린 삶'이다. 미래 어느 누군가가 한 인물을 평가하는 데는 수많은 자료와 수많은 시대에 대한 고민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의 삶이 향수어린 추억으로 영웅화되기보다는 역사적 맥락과 함께 시대정신 속에서 논의되고 평가되기를 바란다.

3) 인물에 대한 '형해화(形骸化)'된 기억

모든 역사는 기억에 의존하며 많은 회상이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18] 기억이란 과거의 재현이다. 그것은 지금의 나와는 다른 타자를 나의 방식대로 '전유'하는 것이다.[19]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기억'이라는 용어는 단지 과거지향적인 회상을 넘어 '현재진행형'인 '진실'의 기표로 사용되고 있다.[20] 따라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기억인가가 중요한

17 정진홍, 앞의 논문, 18쪽.

18 허영란, 「역사교과서와 지역사, 기억의 굴절」, 『역사문제연구』 제37호, 역사문제연구소, 2017, 162쪽.

19 전진성, 「기억의 정치학을 넘어 기억의 문화사로」, 『역사비평』 제76호, 역사비평사, 2006, 477쪽.

문제로 떠오른다.

한국사회의 급변성에 중심을 두고 보면 지금의 시점은 가히 '기억투쟁'의 시기 또는 '기억전쟁'[21]의 시기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기억'에 몰입하는 이유는 근현대의 역사적 질곡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일제 강점기와 전쟁, 개발 독재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약자든 엘리트 집단이든 변혁의 시기를 겪어온 경험을 기억 서사란 이름으로 풀어내는 것이 한국 사회의 큰 흐름이 되었다. 그러한 예는 앞서 지적 했듯이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사업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기억의 유용성과 해악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인 함의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의 개념이 아니라 옳은 기억이냐 또는 다른 기억이냐의 문제이다. 그것은 구술자가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다. 기억은 과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역사나 구술사에서 자주 이야기된다. 기억이 구술의 핵심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러하기에 구술은 기억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항상 현재 속에 위치하는 것이 구술이다. 아산 구술은 기억의 문화사, 특히 기억의 경제사를 복원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구술을 통해 사실적 진실 이외의 서사적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구술이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은 구술이 일어나는 다양한 맥락을 해석하고 재인식함으로써 서사적 진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기억하고, 말하는 것인가는 구술자와 면담자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통해 의미화할 수 있다.[22] 이러한 맥락 정보는 한 인물을 이해하고 기록하는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아산 구술도 다양한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맥락 정보를 확인하고 한 인물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자 한다. 각자 다양한 경험들의 기억을 구술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역사화하는 작업이 기본 과정이다. 기억의 기록화는 그러한 측면에서 한 개인의 역사를 보완하는 하나의 장치 구실을 할 수 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기억이 변형되는 과정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20 전징성, 위의 논문, 452쪽.

21 전진성, 위의 논문, 452쪽.

22 최정은, 「기록학계의 구술사 연구에 관한 몇 가지 단상」, 『구술사연구』 제3권 1호, 한국구술사학회, 2013, 154쪽.

그리고 변형된 기억은 사실과 구술자료의 간극을 확대시킴으로써 구술자료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때 우리가 구술자에게서 기억변형이 일어나는 다양한 이유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구술자의 구술자료를 해석하고 그 간극을 좁히는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23] 기억의 경험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기억의 경험은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기대에 의해서 끊임없이 과거와 멀어지면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난다. 기억의 경험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될 때, 우리는 기억의 서사가 보여주고 있는 표면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기억의 경험은 왜곡을 동반하고 있어서 가변성과 유동성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24]는 전제에 동의를 하며, 아산에 대한 기억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기억이 존재하는 것이 구술의 또다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는 사건에 개입한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구술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예가 그러한 경우이다.

> 전체 공사 실비 12억 달러에서 25%를 깎았다가 5%를 다시 더 깎아 8억 7천만 달러로 응찰 가격을 정했다. 나는 10억 달러 이하의 응찰자는 없다고 확신했다. 전갑원이 너무 싼값이라고 불만을 토했다. (중략) 각 입찰팀에서 한사람씩 투찰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전갑원을 들여보냈다. 그런데 잠시 후, 응찰 가격을 써고 투찰실에서 나오는 전갑원 상무의 얼굴이 어째 개운치 않아 보였다.
>
> "뭐, 입찰금액을 잘못 쓰고 나온 거야?"
>
> 혹시나 뭔가 실수를 하고 나온 게 아닌가 불안했다.
>
> "아닙니다. 그대로 안썼습니다."
>
> 기절 초풍할 대답이 돌아왔다. 내 지시를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물동이는 이미 엎어지고 쏟아진 물을 주워담을 수는 없잖은가.
>
> "얼마 썼는데?"
>
> "9억 3천 1백 14만 달러로 썼습니다.
>
> 그것은 우리가 산출했던 실제 공사 경비 12억 달러에서 25%를 깎은 가격이었고

23 조영재, 앞의 논문, 64쪽.

24 한정훈, 「구술생애담, 기억의 재현과 주체의 복원」, 『감성연구』 제6집, 호남학연구원, 2013, 177-178쪽.

전상무가 마지막까지 고집했던 금액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8억 7천만 달러는 너무 싸서, 낙찰이 안 되면 걸프만에 빠져 죽을 생각으로 6천만 달러 더 썼습니다.”

(중략)

전갑원의 귀에 들린 소리가 ‘미국 브라운 앤드 루트사, 9억 4백 44만 달러’라는 한마디였다고 한다. 무참했다. 어린애처럼 혼자 기가 막혀 앉아 있는데, 정문도가 날아가게 환한 얼굴로 손가락으로 승리의 브이를 만들어 치켜 들고 뛰어 나왔다. “주베일 산업항 건설 공사가 우리 ‘현대’로 낙찰됐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전갑원이 잠깐 들어가 들었던 부라운 앤드 루트사의 9억4백44만 달러는 해양유조선 정박 시설에만 국한된 응찰 가격이었고, 그것은 무효처리되었다고 했다. 입찰 결과 발표장에서 사우디 측이 말했다.

“현대는 우리가 제시한 4개 공사 내역으로 한 주베일 산업항 건설을 9억3천1백14만 달러로 투찰했다 모든 서류는 완벽하다. 특히 42개월의 공사 기간을 조건없이 6개월 단축시키겠다는 제의에 감명 받았다.”(아산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 215~218면)

주베일 산업항 공사 입찰팀은 총 11명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호텔방을 빌려 입찰계획서를 작성했다. 10권이 넘는 입찰계획서를 작성하고 나서 최종 마무리로 입찰 금액을 정하는 일만 남았다. 나와 전갑원은 미리 철저하게 계산해 본 결과 9억 3천만 달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명예 회장님은 8억 3천만 달러(dollar)로 쓰라고 했다. 우리는 깜짝 놀라며 안된다고 반대를 했다. 그 이후 많은 시간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명예 회장님의 의지는 확고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공사는 꼭 수주해야 된다고 했다. 공사를 수주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는 달러가 하나도 없어 부도나게 생겼으니 이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밑져도 좋으니 꼭 수주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우리는 또다시 설득을 하기 시작했다. 명예 회장님은 서서히 8억 3천에서 8억 5천으로 다시 8억 7천으로 수정하여 우리들에게 입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우리도 물러서지 않았다. 9억 3천만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물론 자신 있다고 대답했다. 만약 실패하면 목숨을 내어 놓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명예 회장님을 설득했다. 우리의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명예 회장님은 입찰팀을 모두 불러 하나하나 체크하며

최종적으로 입찰금액을 9억 3천만 달러로 확정했다. 밤새워 10권이 넘는 입찰계획서를 만들고 명예 회장님은 입찰계획서 한 장 한 장에 일일이 사인(sign)을 하였다. 사인(sign)을 해야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가끔 졸기도 하고 사인(sign)은 제이유(JU)를 쓰는데 쓰다보니 글씨가 점점 작아지기도 했다.

이제 입찰계획서를 들고 전갑원 사장과 영어를 잘하는 정문도 사장하고 둘이 가라고 명예 회장님이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입찰장에는 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전갑원과 정문도 두 사람이 들어갔다. 입찰 판정관이 왜 둘이 왔느냐고 하면서 한 사람을 나가라고 했다. 전갑원 사장이 쫓겨 나오면서 얼핏 들은 소리가 미국의 브라운 루트(Brown Root)라고 하면서 입찰 금액은 8억 3천만이라고 했다. 그 순간 전갑원은 얼굴이 하얘지며 어쩔 줄을 몰랐다. 그때 복도에 있던 명예 회장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전갑원에게 물었다, 전갑원은 우리보다 싼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우리는 비상계단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죽었다는 생각으로 그야말로 펑펑 울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명예 회장님은 입찰장에 있는 다른 회사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되면 우리가 싸게 하청을 해줄게 하며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정말 집념이 강하고 대단한 분이었다. 얼마 후 정문도 사장이 손뼉을 치며 나오며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안됐다고 실의에 빠져 있는데 됐다고 하니까 명예 회장님이 걸음걸이가 달라졌다. 내 평생 그렇게 활발하게 걷는 것을 처음 봤다. 정문도 사장에 의하면 미국의 브라운 루트(Brown Root)는 해상 터미널 구조물을 8억 3천만 달러에 입찰한 것이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수주하게 되고 그 공사를 무난하게 성공시킨 것이다.(구술자 ○○○ 인터뷰)

아산 본인이 진술한 자서전인 『이땅에 태어나서』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회의를 통해 8억 7천만 달러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투찰자를 들어간 ○○○ 상무가 개인의 판단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9억 3천만 달러를 적어 내었다는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구술자인 ○○○의 진술에 의하면 응찰 금액이 밤샘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모두가 그 금액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도 왜 자서전에 그렇게 기술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동일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의 상이성으로 인해 다른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구술자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기억이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정한 기억은 어떤 고정된 순간에 대한 것이지만 그 순간의 고정성은 과거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바라 본 과거의 순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순간성으로 인해 기억은 불변하는 것으로 고정될 수 없다. 기억의 이러한 특징은 구술에 대한 의미부여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많은 이들이 아산을 기억하고 그를 역사적 인물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억은 아련한 향수로 바뀐다. 한 인물의 성취도 시간이 흐르면서 지나간 과거가 된다. 따라서 그가 이룬 축적된 역사적 성과는 기념비에 새겨진 공적으로 기림을 받던가 아니면 일상적이지 않은 존재라는 신비의 너울 속에서 숭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은 축적된 역사적 성취가 삶의 가능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현실적합성이 없기 때문이다.[25] 따라서 그의 성취가 많은 이들의 모범이 되는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형해가 된 기억만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그 기념비나 형해의 잔존을 확인한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의 '실재가 가진 무게'가 해체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어떻게 살아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행적이 여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산이 현존하던 '그때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한 소상히 밝혀지고 기술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닌 그에 대한 기림이 아산이 현존하던 '그때 거기'에서의 '역사적 현실'을 준거로 할 때 과연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그 기림의 의미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형해가 된 기억이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좇아야 하는 일연의 '작업'이 요구되는 일이다.[26] 그 작업이 곧 아산의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일이고 구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당위이다. 우리가

25 정진홍, 앞의 글, 5쪽.

26 정진홍, 위의 글, 6쪽.

알고 있는 아산과 다른 아산을 구술을 통해 부분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적 기억은 탈시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내용은 언제나 기억 주체에게는 잊히지 않는 것, 자기 삶의 과정에서 두드러진 것, 일상의 흐름 안에 용해되지 않은 것들이다. 형해가 되는 기억들의 복원을 위해서 구술은 필요한 것이며 그 사건들의 증언을 위해서는 구술은 소중한 것이다. 아산 구술의 궁극적 지향점은 형해(形骸)가 된 기억이 살아있는 역사, 일상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사적 실체로 살아남는데 있다. 이것이 아산 구술이 주는 기억의 의미이다.

4. 어떻게 할 것인가

1) 아산 구술 자료의 활용과 방법

아산관련 구술자료 수집사업은 수집 과정 및 아카이브 구축의 전과정을 체계화하고 그 성과를 각 기관 및 단체와 공유함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아산관련 구술자료의 총괄 수집이다. 가장 중심적인 목적은 아산 정주영에 관한 총체적인 구술자료 수집 기록이다. 무엇보다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행해져온 구술인터뷰를 체계화하여 자료의 결집을 이루도록 한다. 아울러 구술자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아산'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평가한다.

둘째, 아산관련 구술자료 수집으로 학적 기반을 조성한다. 이 사업을 통해 아산관련 자료가 수집되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해 학문적 성과들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구술인터뷰의 경우 각 분야별 인사들이 고루 참여하게 됨에 따라 그 과정 자체가 아산연구의 학적 기반을 넓히는 것이 된다. 구술자료들은 문헌자료의 한계성 극복하여 한 인물의 일대기를 온전하게 복원하는 기능도 할 것이다. 구술기록에 근거한 개인사의 기술을 통하여 한 인물의 생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셋째, 아산관련 구술자료의 통합 디지털 DB 구축이다. 연구자들에게 구술자료를 1차적으로 제공함과 아울러 2차로 진행되는 성과물들을 통합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내지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의 보관 및 그것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독립적인 웹(web)을 구성한다.

넷째, 아산관련 구술자료의 연구개발을 통한 '아산연구'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기여한다. 기존의 아산관련 구술자료는 그룹 내의 각종 사보에 활용하기 위해 채록한 것인데 반해, 이번 사업에서는 이것이 일반 연구자들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아산연구'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활성화되어 더 많은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데 있다.

2) 아산 구술의 시대적 의미

구술자료는 문헌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여 한 인물에 대한 객관적이며 보편타당한 관점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구술은 다른 매체들의 기록성을 보완함으로써 기록의 온전함을 갖추는데도 의미가 있다.

한국 근대화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 중의 한명이 아산 정주영이다. 그는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이었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시대 상황을 재빠르게 인식하고 '땅'이 아닌 '노동'과 '기술'에 온 힘을 쏟아 붓는다. 그리하여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을 만들어 국가 기간산업의 중흥을 이끌어 낸다. 또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혀간다.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역사회학교후원회, 해변시인학교 후원을 비롯하여 문화계·교육계·법조계·예술계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삶의 폭을 넓혀가면서 사회에 기여를 한다. 그의 이러한 삶의 흔적들은 한국근현대사의 변화와 한국경제발전사의 중심적 인물이 되어, 연구의 필요성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학문의 장 안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재벌'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한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그의 업적을 높이고, 개인적인 노력과 성공을 선망하면서 훌륭한 위인처럼 그리는 것이 한 측면이다. 다른 측면은 재벌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과 정치권과의 부도덕한 관계, 노동운동 탄압 등을 강조하면서 한국 경제의 암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인식은, 한국 사회에서 기업 혹은 기업인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들의 활동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로막는다.[27] 긍정과 부정의 측면조차도 연구의 틀 안에서 논의되고 그것을 통해 한국경제 또는 기업가들의 역할과 의무 등을 규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성찰이다.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위해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믿을 만한 축적된 자료들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문헌자료이든 구술자료이든 연구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자료들은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구술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부분 기업의 창업주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료를 생산하는 이들은, 창업주들이 현역에서 활동하던 때에 진행하였던 인터뷰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 알려진 단편적인 일화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자료 생산자들은 여러 기업의 창업주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고, 특정한 역사적 맥락 하에서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성공한 기업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 '지혜와 카리스마의 소유자', '창의와 도전으로 고난을 극복한 사람' 등 몇 가지의 이미지를 만들어놓고, 그 이미지에 맞는 방식으로 각 창업주의 삶을 '전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전유는 '이윤 추구'라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현상은 세상을 떠난 시기가 오래되면 오래된 창업주일수록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양산된 저작물은 그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실체가 없는 왜곡된 형상만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다. 창업주들에 대한 논의가 연구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28]

우리가 하는 구술이 적어도 아카데미즘이 전제하는 사실의 기술, 그로부터 비롯되는 판단,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사실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의미의 추출 등 아산관련 구술사업은 어떤 자리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공정하게 수행했다고 신뢰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바람이다.

27 아산리더십연구원 편, 『소장도서해설집』, 울산대 아산리더십연구원, 2014, 14쪽.

28 아산리더십연구원 편, 위의 책, 7쪽.

그간 아산에 대한 평가는 주로 성공한 기업인에 초점이 맞춰지거나, 그의 인간적 면모 및 성장과정의 문제는 희화화 내지는 영웅화의 장치로 둔갑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한 인간의 면모를 총체적,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살아온 시대에 대한 인식은 자본의 축적에 초점이 맞추어 졌으며, 그의 행동 이면에 숨어 있는 시대인식 또는 시대정신에 대한 의미 부여나 서술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구술의 목적은 정직한 인식과 열린 세계를 향한 작은 몸짓이다. 비범함을 넘어서는 평범함의 발견을 통해 그의 삶을 평가하고자 한다. 비범함은 평범함의 밖에 있을 때는 감동이 멀어진다. 그의 비범함에 그친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그를 '박제화'하여 박물관에 유폐시키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영웅화, 신화화된 인물이 아닌 일상인, 생활인으로서의 아산을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또한 아산이라는 인물에 대해 긍정적 시각이든 부정적 시각이든 학문의 장 안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구술의 목적이기도 하다. 결국은 그가 남긴 문헌자료의 한계를 구술자료로 보완하여 그의 삶의 재조명하고자하는 것도 이 사업의 궁극적 목적이다. 성공한 기업인은 많으나 존경받는 기업인은 별로 없는 실정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치열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아산현상'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천착되어 모든 역사적 기억의 전승이 그러하듯 우리에게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아산을 박제(剝製)화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닌, 그에 대한 형해(形骸)가 된 기억이 살아있는 역사, 일상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사적 실체로 살아남아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아산 구술의 시대적 의미이다. 아산 연구와 기록이 과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닌 현재는 물론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힘'의 원천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5. 마무리

이 글은 구술사의 논점이나 쟁점을 다룬 글이 아니다. 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이야기이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

고 있는 구술사업들의 성과와 중요성들은 이미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 상당한 연구성과도 축적되었다. 그러나 한국 경제 발전사에서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기업가에 대한 이야기는 때론 폄하되거나 부정적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근현대 한국경제발전에 있어 국가나 기업들이 담당했던 역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각 분야 중에서도 우리네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제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따라서 '재벌'이라고 불리는 이 땅의 기업가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한 올바른 이해는 한국의 미래 역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아산 관련 구술도 한 사람의 빛나는 성취를 박물관의 유산으로 박제화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은 결코 아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훗날 연구자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사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긴다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활용 가치보다도 10년 더 나아가 50년, 100년 뒤, 우리 삶의 역사가 더 튼실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보존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기록하지 못한 역사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는 기록은 우리네 삶의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산 아카이브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울산대 아산리더십연구원에서는 아산 탄생 100주년을 맞아 『아산, 그 새로운 울림: 미래를 위한 성찰』(2015년)이라는 주제로 아산연구총서 4권을 펴낸 바가 있다. 이러한 총서는 아산을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허영란, 「집합기억의 재구성과 지역사의 모색」, 『역사문제연구』 제32호, 역사문제연구소, 2014. 374쪽.

조영재, 「'사실'과 '구술자료'의 간극에 대한 하나의 해석 : 정치엘리트 구술을 중심으로」, 『기록학 연구』 43집, 한국기록학회, 2015, 67-68쪽.

조영재, 위의 논문, 50쪽.

정진홍, 「긍정·도전·창의의 기반 - 아산의 자아구조」, 『아산, 그 새로운 울림: 미래를 위한 성찰』(제1권 얼과 꿈), 울산대 아산리더십연구원, 2015, 162쪽.

김귀옥,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구술사 연구의 탄생과 역할, 과제」, 『구술사연구』 제7권 2호, 한국구술사학회, 2016, 31쪽.

함한희, 「구술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구술사연구』 창간호, 한국구술사학회, 2010, 19쪽.

윤택림, 「기관구술채록의 진단과 과제」, 『구술사연구』 제6권 1호, 한국구술사학회, 2015, 29-30쪽.

구술자료의 서비스 문제는 아직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하여 실시간 제공은 하지 않고 있다. 구술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제3자 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우, 「엘리트 구술자료의 성격과 수집 방안」, 『구술사연구』 제5권 1호, 한국구술사학회, 2014, 49쪽.

허영란, 「아산학과 한국의 현대심성사」, 『제1회 아산학술심포지엄』, 울산대 아산리더십연구원, 2013, 35쪽.

허영란, 위의 논문, 36쪽.

박태원, 「자기구현의 인간학-아산의 인성」, 『아산, 그 새로운 울림: 미래를 위한 성찰』 (제1권 얼과 꿈), 울산대 아산리더십연구원, 2015, 95쪽.

허영란, 앞의 논문, 37쪽.

박태원, 앞의 논문, 93쪽.

박태원, 위의 논문, 93쪽.

정진홍, 앞의 논문, 18쪽.

허영란, 「역사교과서와 지역사, 기억의 굴절」, 『역사문제연구』 제37호, 역사문제연구소, 2017, 162쪽.

전진성, 「기억의 정치학을 넘어 기억의 문화사로」, 『역사비평』 76호, 역사비평사, 2006, 477쪽.

전징성, 위의 논문, 452쪽.

전진성, 위의 논문, 452쪽.

최정은, 「기록학계의 구술사 연구에 관한 몇 가지 단상」, 『구술사연구』 제3권 1호, 한국구술사학회, 2013, 154쪽.

조영재, 앞의 논문, 64쪽.

한정훈, 「구술생애담, 기억의 재현과 주체의 복원」, 『감성연구』 제6집, 호남학연구원, 2013, 177-178쪽.

정진홍, 앞의 글, 5쪽.

정진홍, 위의 글, 6쪽.

아산리더십연구원 편, 『소장도서해설집』, 울산대 아산리더십연구원, 2014, 14쪽.

아산리더십연구원 편, 위의 책, 7쪽.